

코로나19 전후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 및 시사점



코로나19 전후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 및 시사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최경은 연구위원 (geochoi@kcti.re.kr)

목 차

1. 중국인 방한관광 경과, 중단 및 재개
2. 코로나19 이전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
3.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방한관광 회복
4. 결론 및 시사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 교류가 전면 중단되면서 국제관광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2022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됨.
- 2023년 중국인 방한시장은 1월에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되고 8월에는 한국이 해외 단체여행 허용국가에 포함되었으나 더디게 회복됨.
-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에는 2013년부터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인바운드 시장이었으며, 2016년에는 약 807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함.
 - 2016년 한중 간 사드 갈등으로 인해 2017년부터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이 제한됨.
-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에 따른 국제관광 전면 중단에 이어 2023년 더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방한시장은 2024년부터 빠르게 회복되면서 일본과 미국에 밀렸던 중국이 2024년에 다시 제1의 방한시장으로 재등극함.
- 중국인 방한시장의 전면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전략적 정책과제들이 요구됨.

1. 중국인 방한관광 경과, 중단 및 재개

1) 중국인 해외여행 개방

■ 대륙별·국가별 단계별 접근

- 중국은 1983년부터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허용하였으며, 본격적인 개방은 2000년 이후 대륙별·국가별로 순차적으로 접근되어짐.
 - 아시아의 홍콩/마카오가 1983년에 최초로 개방되었으며, 이어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이 1990년 전후로 개방됨.
 - 아시아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 대양주 국가들이 그 다음으로 개방되었으며, 이어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개방되었고 미주 대륙의 국가들은 가장 늦게 중국인 해외여행이 허용됨.
- 우리나라는 1998년에 베이징, 상하이, 산둥성 등 9개 일부 지역에서 일차적으로 개방되었으며, 중국 전 지역에서는 2000년에 개방이 이루어짐.

2) 중국인 방한관광의 성장, 중단과 재개

■ 중국인 방한관광의 성장 추이

- 2012년까지 일본이 우리나라 최대 방문국이었으나, 중국인 방한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2013년부터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방문국의 지위를 갖게 됨.
 - 2012년: 일본인 방한시장(약 352만 명) > 중국인 방한시장(약 284만 명)
 - 2013년: 중국인 방한시장(약 433만 명) > 일본인 방한시장(약 275만 명)
- 방한 중국인 수는 2013년 이후에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약 807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함.
 - 2015년에는 MERS의 발생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여 약 598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함.
- 2016년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간 갈등 양상으로 인해 2017년부터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이 제한됨에 따라 방한 중국인 수가 약 417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함.
- 그러나 2018년부터 중국인 개별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방한 중국인 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9년에는 약 602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함.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중국인 방한관광의 중단과 재개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중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제관광 교류가 전면 중단되는 위기를 겪음.
- 이에 따라 방한 중국인 수는 2020년 약 69만 명에서 2021년에는 약 17만 명, 2022년에는 약 23만 명까지 급감함.
 - 2020년 수치는 15년 전인 2005년과 유사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나타난 2021년부터의 수치는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 수준으로 돌아간 것임.
- 2022년 말 중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오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2023년 1월에는 전면 폐기조치함에 따라(표나리 2023), 중국인 방한시장은 2023년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함.

- 2023년 8월에는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 허용이 이루어졌는데, 중국 정부는 2023년에 총 3차례에 걸쳐 중국인의 해외 단체여행을 허용하였으며 그 중 한국은 3차 명단에 포함됨(中国文化和旅游部 홈페이지).
- 2016년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이 불거진 이후 약 6년 5개월 만에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이 가능해지게 됨.
- 2024년에는 빠른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1~9월 기준 약 361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함.

2. 코로나19 이전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

1) 2000년대

▣ 방한 중국인 수 추이

- 2000년에 중국 전 지역에서 자국민의 방한관광이 허용됨에 따라 2000년대 방한 중국인 수는 꾸준하게 증가함(최경은 2011).
- 먼저 중국인 출경자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약 1,047만 명에서 지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3천만 명을 그리고 2007년에는 4천만 명을 넘었으며, 2009년에는 약 4,766만 명을 기록함.
 - 출경(出境)자는 중국 특유의 표현으로 중국대륙의 해외 출국자에 더하여 홍콩, 마카오, 대만을 방문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
- 방한 중국인 수의 추이는 2000년 약 44만 명에서 2005년에는 70만 명을 그리고 2007년에는 100만 명을 넘었으며, 2009년에는 전년 대비 14.9% 증가한 약 134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함.
 - 2003년에는 SARS의 발생으로 방한 중국인 수가 전년 대비 4.9% 감소하여 약 51만 명을 나타냄.

[표 1] 중국인 출경자 및 방한 중국인 수 추이(2000년대)

(단위: 명, %)

구분	중국인 출경자 수 (만 명)	방한 중국인	
		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00	1,047.26	442,794	39.8
2001	1,213.31	482,227	8.9
2002	1,660.23	539,466	11.9
2003	2,022.19	512,768	-4.9
2004	2,885.29	627,264	22.3
2005	3,102.63	710,243	13.2
2006	3,452.36	896,969	26.3
2007	4,095.40	1,068,925	19.2
2008	4,584.44	1,167,891	9.3
2009	4,765.63	1,342,317	14.9

자료:中国国家旅游局(2001~2010), 中国旅游业统计公报(2000~2009);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2000~2004년 통계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입국관광통계(2005~2009년)

2) 2010년대

■ 방한 중국인 수 추이

- 2010년대 중국인 출경자 수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에 5천만 명을, 2012년에는 8천만 명을 그리고 2014년에는 1억 명을 넘어섬.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19년에는 중국인 출경자 수가 약 1억 5천만 명을 기록함.
- 방한 중국인 수 역시 2010년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10년대는 중국인 방한관광의 본격적인 성장 시기라 할 수 있음.
- 2010년 약 188만 명에서 2014년에는 6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6년에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 전년 대비 34.8% 증가한 약 807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함.
 - 2015년에는 MERS의 발생으로 방한 중국인 수가 전년 대비 2.3% 감소한 반면 2017년에는 사드배치로 본격화된 한중 갈등 격화로 인해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방한 중국인 수가 전년 대비 48.3% 감소하여 약 417만 명을 기록함.
- 2018년부터 중국인 개별여행객의 증가에 힘입어 방한 중국인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약 602만 명이 한국을 방문함.

【표 2】 중국인 출경자 및 방한 중국인 수 추이(2010년대)

(단위: 명, %)

구분	중국인 출경자 수 (만 명)	방한 중국인	
		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10	5,738.65	1,875,157	39.7
2011	7,025.00	2,220,196	18.4
2012	8,318.27	2,836,892	27.8
2013	9,818.52	4,326,869	52.5
2014	10,728	6,126,865	41.6
2015	11,689	5,984,170	-2.3
2016	12,203	8,067,722	34.8
2017	13,051	4,169,353	-48.3
2018	14,972	4,789,512	14.9
2019	15,463	6,023,021	25.8

자료:中国国家旅游局(2011~2014),中国旅游业统计公报(2010~2013);中国文化和旅游部(2020),中华人民共和国文化和旅游部2019年文化和旅游发展统计公报;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입국관광통계

3.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방한관광 회복

1) 2020년대

▣ 방한 중국인 수 추이

- 2020년대 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국제관광이 유래없는 침체를 맞게 됨.
- 방한 중국인 수 역시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급감세가 이어짐.
 - 2020년: 약 69만 명, 2021년 약 17만 명, 2022년 약 23만 명
- 2023년 1월에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전면 폐기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급감세가 크게 완화됨에 따라 2023년 방한 중국인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약 202만 명을 기록함.¹⁾
- 2024년에는 방한 중국인 수가 다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1~9월 기준 약 361만 명을 나타냄.

[표 3] 중국인 출경자 및 방한 중국인 수 추이(2020년대) (단위: 명, %)

구분	중국인 출경자 수 (만 명)	방한 중국인	
		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20	-	686,430	-88.6
2021	-	170,215	-75.2
2022	-	227,358	33.6
2023	8,763	2,019,424	788.2
2024.1.~9.	-	3,606,416	178.5

주: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2년 중국인 출경자 수 미발표.

자료: 中国文化和旅游部(2024), 中华人民共和国文化和旅游部2023年文化和旅游发展统计公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입국관광통계

1) 2023년 중국인 방한여행 재개로 약 0.21%p의 경제성장 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산됨(김형중·최경은 2023).

2) 2023년 이후 방한 중국인 월별 회복 추이(2023~2024.9)

■ 2023년

- 2023년 월별 중국인 방한관광 회복 추이를 살펴보면, 1월 2만 명대에서 4월부터는 10만 명대로 올라섰으며 7월부터는 20만 명대를 유지함.
- 2023년 내내 세 자릿수 이상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였으며, 전월 대비 증감률의 경우 1월과 10~11월을 제외하고는 양(+)의 증감률을 나타냄.

[표 4] 월별 중국인 방한관광 회복 추이(2023년)

(단위: 명, %)

구분	방한 중국인			구분	방한 중국인		
	수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수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월	24,946	162.9	-8.8	7월	224,805	1,155.4	33.8
2월	45,884	173.9	83.9	8월	259,659	758.4	15.5
3월	73,390	398.4	59.9	9월	263,940	793.8	1.6
4월	105,967	935.8	44.4	10월	249,483	987.5	-5.5
5월	128,171	1,039.0	21.0	11월	221,469	816.1	-11.2
6월	168,035	1,218.9	31.1	12월	253,675	826.9	14.5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입국관광통계

■ 2024년

- 2024년 월별 중국인 방한관광 회복 현황을 살펴보면, 1월에는 20만 명대였으나 2월부터는 줄곧 30만 명 이상을 보였으며 8월의 경우 50만 명을 넘어섬.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의 경우 1월부터 7월까지의 세 자릿수 이상을 나타냈으며, 전월대비 증감률 또한 5월과 9월을 제외하고는 양(+)의 값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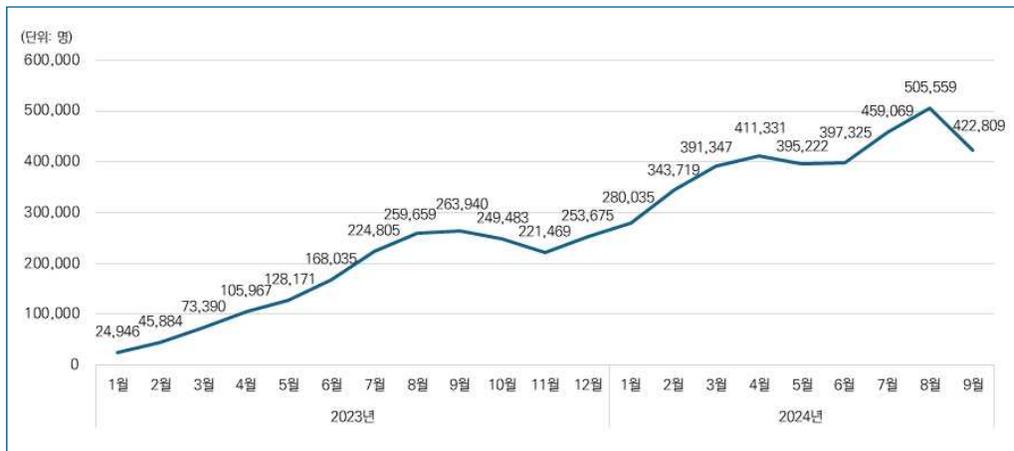
[표 5] 월별 중국인 방한관광 회복 현황(2024년 1~9월)

(단위: 명, %)

구분	방한 중국인			구분	방한 중국인		
	수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수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월	280,035	1,022.6	10.4	6월	397,325	136.5	0.5
2월	343,719	649.1	22.7	7월	459,069	104.2	15.5
3월	391,347	433.2	13.9	8월	505,559	94.7	10.1
4월	411,331	288.2	5.1	9월	422,809	60.2	-16.4
5월	395,222	208.4	-3.9	합계	3,606,416	178.5	-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입국관광통계

[그림 1] 월별 중국인 방한관광 회복 추이(2023~2024년 9월)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입국관광통계 토대로 저자 작성.

3) 중국인의 주변국 방문 회복 동향

■ 일본·대만

- 일본은 2000년에 중국인 해외여행이 허용되었으며, 2016년까지는 방일 중국인 수가 방한 중국인 수보다 더 적었으나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인해 2017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2022년을 제외하고는 방일 중국인 수가 더 많음.

- 2024년 상반기 기준 방일 중국인 수는 약 307만 명임.
- 2008년에 중국인 해외여행이 허용된 대만은 방대 중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다 2016년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중국의 비공식적인 보복으로 인해 방대 중국인 수가 감소세로 돌아섬.
- 코로나19 이후에도 방대 중국인 수는 팬데믹 이전으로의 회복이 가장 저조한데, 2019년 방대 중국인 수가 약 271만 명인 반면 2024년 상반기 기준 방대 중국인 수는 19만 명에도 못 미치고 있음.
- 2024년 상반기 기준 중국인 방문자 수는 일본 > 한국 > 대만 순인 반면, 회복률은 한국 > 일본 > 대만 순임.

[표 6] 중국인의 일본 및 대만 방문 회복 현황(2019~2024년 상반기) (단위: 명, %)

구분		일본	대만	한국
2019년		9,594,394	2,714,065	6,023,021
2020년		1,069,256	111,050	686,430
2021년		42,239	13,267	170,215
2022년		189,125	24,378	227,358
2023년	방문자 수	2,425,157	226,269	2,019,424
	중국시장 회복률	25.3	8.3	33.5
2024년 상반기	방문자 수	3,072,856	188,069	2,218,979
	중국시장 회복률	67.8	11.2	79.2

주: 1. 회복률은 각국의 입국관광 통계자료 토대로 저자가 계산하여 작성.

2. 중국시장 회복률은 2019년 동기 대비

자료: 각국 입국관광 통계자료

■ 주요 동남아 국가²⁾

- 동남아 국가 중에서 1988년에 가장 먼저 중국인 해외여행이 개방된 태국은 방문 중국인 수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2018년에 1천만 명을 넘어섬.

2) 본 원고에서 주요 동남아 국가는 4개국(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으로 한정함.

- 2019년 방태 중국인 수는 약 1,100만 명임.
- 그러나 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으로 2020~2021년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뚜렷한 증가 움직임을 보이며 다시 회복세로 돌아섬.
 - 2023년 방태 중국인 수는 약 352만 명, 중국 시장의 태국 방문 회복률은 32.0%임.
 - 2024년 상반기 기준 방태 중국인 수는 약 344만 명, 중국 시장의 태국 방문 회복률은 60.9%임.
- 싱가포르는 1990년에 중국인 해외여행이 개방된 이래 방문 중국인 수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중국인 수가 급감함.
 - 2019년 싱가포르 방문 중국인 수는 약 363만 명임.
 - 2023년 싱가포르 방문 중국인 수는 약 136만 명, 중국시장의 싱가포르 방문 회복률은 37.6%임.
 - 2024년 상반기 기준 싱가포르 방문 중국인 수는 약 145만 명, 중국시장의 싱가포르 방문 회복률은 79.8%임.
- 베트남은 2001년에 중국인 해외여행이 허용되었는데, 2010년대 후반에 방문 중국인 수가 급증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어섬.
 - 2019년 베트남 방문 중국인 수는 약 581만 명임.
- 그러나 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정부도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빠른 증가세에 힘입어 회복세로 돌아섬.
 - 2023년 베트남 방문 중국인 수는 약 174만 명, 중국시장의 베트남 방문 회복률은 30.0%임.
 - 2024년 상반기 기준 베트남 방문 중국인 수는 약 189만 명, 중국시장의 베트남 방문 회복률은 76.2%임.
- 필리핀은 1992년에 중국인 해외여행이 개방되었는데,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방문 중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다 역시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감함.

- 2019년 필리핀 방문 중국인 수는 약 174만 명임.
 - 2023년 필리핀 방문 중국인 수는 약 26만 명, 중국시장의 필리핀 방문 회복률은 15.1%임.
 - 2024년 상반기 기준 필리핀 방문 중국인 수는 약 19만 명, 중국시장의 필리핀 방문 회복률은 22.1%임.
- 2024년 상반기 기준 중국인 방문자 수는 태국 > 한국 > 베트남 순인 반면, 회복률은 싱가포르 > 한국 > 베트남 순임.

[표 기] 중국인의 동남아 주요국 방문 회복 현황(2019~2024년 상반기) (단위: 명, %)

구분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한국	
2019	10,997,372	3,627,120	5,806,425	1,743,309	6,023,021	
2020	-	357,292	-	170,432	686,430	
2021	-	88,252	-	9,674	170,215	
2022	273,567	130,868	124,896	39,627 (2~12월)	227,358	
2023년	방문자 수	3,521,095	1,363,921	1,743,204	263,836	2,019,424
	중국시장 회복률	32.0	37.6	30.0	15.1	33.5
2024년 상반기	방문자 수	3,439,482	1,446,162	1,891,096	191,222	2,218,979
	중국시장 회복률	60.9	79.8	76.2	22.1	79.2

주: 1. 태국과 베트남은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1년 통계자료 미발표.
 2. 필리핀의 경우 2022년은 2~12월 통계자료임.
 3. 회복률은 각국의 입국관광 통계자료 토대로 저자가 계산하여 작성.
 4. 중국시장 회복률은 2019년 동기 대비

자료: 각국 입국관광 통계자료

4) 방한 중국인의 일반적 특성

■ 성별

- 2010년대 이후 성별로는 여성 방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여성 방문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 방문자가 더 중요한 고객시장이라 할 수 있음.

[그림 2] 방한 중국인의 성별 현황(2011~2024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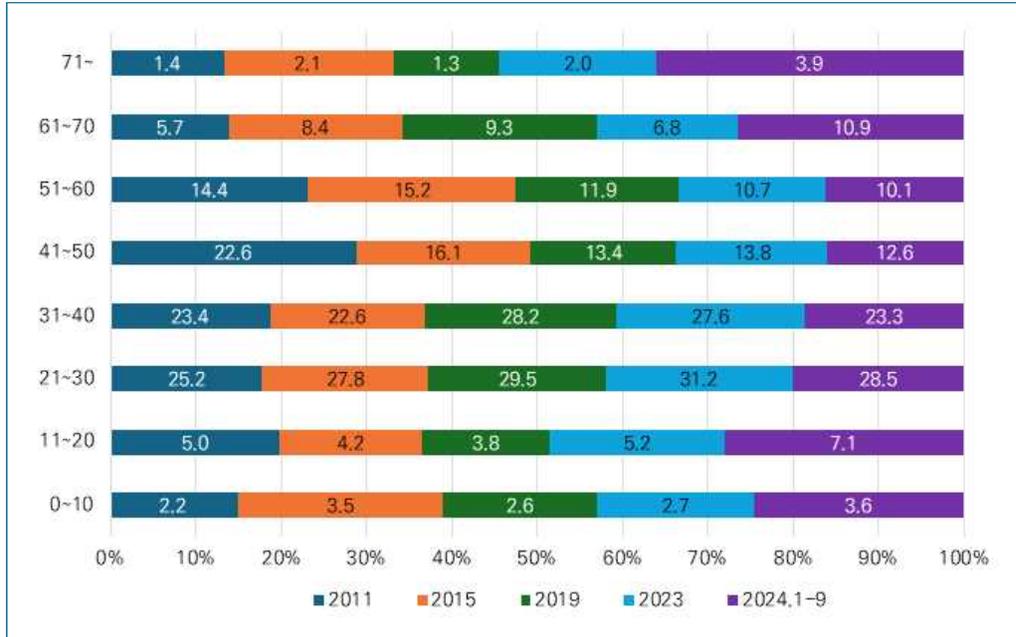
주: 전체 방한 중국인 수에서 승무원 수를 제외하고 성별 비율을 계산함.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입국관광통계 토대로 저자가 계산하여 작성.

■ 연령별

- 중국인의 연령별 방한 현황을 살펴보면, 21~40세까지 각 연령층의 비중이 20%를 넘으며 주요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2010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31~40세였으나, 2011년부터는 21~30세 연령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31~40세 연령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를 통해 연령별로는 20~30대 연령층이 주력 시장임을 알 수 있음.

[그림 3] 방한 중국인의 연령별 현황(2011~2024년 9월)



주: 1. 전체 방한 중국인 수에서 승무원 수를 제외하고 연령별 비율을 계산함.
 2. 그림 내 각 연령층의 비율은 반올림되어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입국관광통계 토대로 저자가 계산하여 작성.

5) 중국인 방한여행의 주요 행태3)

■ 방한여행 이전

- 중국인의 방한 현황을 목적별로 살펴보면, '여가/위락/휴식' 목적의 방문 비중이 60%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코로나19 이전에는 '여가/위락/휴식' 목적이 70% 내외였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3년에는 60%대 초반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사업 또는 전문활동'(14.9%), '친구/친지 방문'(1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중국인 방한여행의 주요 행태는 여행 단계별(이전/중/이후)로 나누어 파악함.

[표 8] 중국인의 주요 방한 목적

(단위: %)

구분	여가/위락/휴식	사업 또는 전문활동	친구/친지 방문	교육
2015	67.5	7.8	6.1	3.0
2019	70.7	12.4	13.7	3.0
2023	61.1	14.9	14.1	8.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외래관광객조사

- 주요 방한 목적에 대해 2023년과 2024년 각각 상반기를 분기별로 비교해 보면, 2023년 1분기에는 ‘여가/위락/휴식’ 목적보다 ‘친구/친지 방문’ 목적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2023년 2분기부터는 ‘여가/위락/휴식’ 목적의 한국 방문이 회복되면서 전체 방한 목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됨.

[표 9] 중국인의 주요 방한 목적 비교(2023~2024년 상반기)

(단위: %, %p)

구분	여가/위락/휴식	사업 또는 전문활동	친구/친지 방문	교육
2023년 1분기(A)	28.6	21.0	30.7	16.8
2024년 1분기(B)	69.8	10.6	13.8	4.3
GAP(B-A)	41.3	-10.4	-17.0	-12.5
2023년 2분기(A)	54.8	19.2	13.5	12.3
2024년 2분기(B)	76.8	6.9	9.1	6.7
GAP(B-A)	22.0	-12.3	-4.4	-5.6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각년도), 외래관광객조사 잠정치 보고서

- 중국인의 한국 방문 선택 시 고려한 활동은 2023년 ‘식도락 관광’(61.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쇼핑’(51.0%), ‘자연경관 감상’(3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인 2015년과 2019년에는 관광활동으로서 쇼핑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던 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방한 시 쇼핑 활동보다는 음식 등 테마관광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음.

[표 10] 중국인의 한국 방문 선택 시 고려한 관광활동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식도락 관광	쇼핑	자연경관 감상
2015	39.3	75.3	50.1
2019	58.1	72.5	41.1
2023	61.5	51.0	39.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외래관광객조사

주: 주요 고려 요인 문항이 2023년 조사부터 방한 고려 관광활동 및 방한 고려 인프라로 변경되었고, 조사 항목도 전반적으로 변경됨.

- 여행 전 한국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경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인터넷 사이트/앱’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친지, 친구, 동료’가 높게 나타남.
- 2023년 ‘친지, 친구, 동료’, ‘자국 여행사’를 통한 정보 획득 비중은 2015년 대비 감소하였고,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한 정보 획득은 2015년 대비 증가함.
- 2019년부터 자국 여행사를 통한 정보 획득 비중이 줄어든 것은 2017년 사드배치 갈등에 따른 중국인 단체여행객 비중이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1] 중국인의 한국여행 관련 주요 정보원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인터넷 사이트/앱	친지, 친구, 동료	주요 언론 매체	관광 안내 서적	항공사, 호텔	자국 여행사 (오프라인)
2015	74.0	68.4	16.7	15.9	3.8	39.7
2019	62.1	49.1	26.4	11.9	9.2	18.6
2023	57.4	47.5	33.5	6.6	9.6	6.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외래관광객조사

주: 2019년 ‘글로벌 인터넷 사이트/앱’, ‘자국의 인터넷 사이트/앱’, ‘한국의 여행 관련 사이트/앱’ 항목이 2023년 ‘인터넷 사이트/앱’으로 변경됨.

■ 방한여행 중

- 2023년 한국을 2회 이상 방문한 중국인은 61.8%로 재방문 비중이 최초 방문 비중보다 더 높게 나타남.
 - 횟수별로는 '1회'가 3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4회 이상'(33.7%)이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인 2015년에는 한국에 처음 방문한 비율이 62.2%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재방문율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12] 중국인의 방한 횟수

(단위: %)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재방문
2015	62.2	16.8	7.2	13.9	37.8
2019	39.9	16.6	13.1	30.4	60.1
2023	38.2	17.6	10.5	33.7	61.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외래관광객조사

- 재방문율에 대해 2023년과 2024년 각각 상반기를 분기별로 비교해 보면, 2023년 1분기와 2분기 모두 재방문율이 70% 이상으로 2024년보다 더 높게 나타남.

[표 13] 중국인의 한국 방문 시 재방문율 비교(2023~2024년 상반기)

(단위: %, %p)

구분	2023년 1분기(A)	2024년 1분기(B)	GAP (B-A)	2023년 2분기(A)	2024년 2분기(B)	GAP (B-A)
재방문율	76.7	55.4	-21.3	71.1	47.7	-23.4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각년도), 외래관광객조사 잠정치 보고서

- 2023년 중국인의 한국 방문 시 여행형태는 '개별여행'이 95.0%로 가장 높고, '단체여행'(4.7%)과 '에어텔'(0.3%)은 10% 미만으로 나타남.
- 2015년과 비교하여 보면, '개별여행'은 증가하였고 '단체여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사드배치 갈등양상에 따른 한국 단체여행 금지 조치 외에 중국인의 개별화·소규모화 추세 강화, 20~30대 젊은층의 방한관광 선도 등 방한 중국관광 트렌드 변화(김현주·권태일 2023)와도 일정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14] 중국인의 한국 방문 시 여행형태 (단위: %)

구분	개별여행	단체여행	에어텔
2015	56.7	40.9	2.4
2019	82.5	15.2	2.3
2023	95.0	4.7	0.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외래관광객조사

- 2023년 동반자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의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감소(65.5% → 51.9%)한 것으로 나타나 나홀로 여행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23년 본인을 제외한 동반자 수는 평균 2.7명으로, 동반자 유형은 ‘친구’(47.2%), ‘배우자/파트너’(25.5%), ‘자녀’(1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5] 중국인의 한국 방문 시 동반자 현황 및 유형 (단위: %, 명, 중복응답)

구분	혼자 왔다	동반자가 있다	평균 동반 인원	1위	2위	3위
2015	19.7	80.3	3.3	가족/친지 (47.1)	친구/연인 (41.8)	직장 동료 (13.6)
2019	34.5	65.5	5.1	친구/연인 (46.0)	가족/친지 (40.0)	직장 동료 (14.8)
2023	48.1	51.9	2.7	친구 (47.2)	배우자/파트너 (25.5)	자녀 (19.5)

주: 2019년 ‘가족/친지’가 2023년 ‘자녀’, ‘부모님’, ‘그 외 가족/친지’로, ‘친구/연인’이 ‘친구’, ‘배우자/파트너’로 변경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외래관광객조사

- 2023년 한국여행 중 중국인이 주로 참여한 활동은 ‘식도락 관광’(72.3%), ‘쇼핑’(69.2%), ‘자연경관 감상’(4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K-POP/한류스타 관련 장소 방문’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2019년 대비 응답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함.

[표 16] 방한 중국인의 주요 참여 활동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식도락 관광	쇼핑	자연경관 감상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K-POP/한류스타 관련 장소 방문
2015	60.7	84.3	36.1	23.0	-
2019	92.4	95.1	68.2	37.7	14.4
2023	72.3	69.2	44.5	18.4	14.6

주: 한류로 인한 관광객 유입효과 파악을 위해 ‘드라마/영화 촬영지 방문’ 문항을 2018년 조사부터 추가하였고, 2019년부터는 ‘K-POP/한류스타 관련 공연장 및 드라마/영화 촬영지 방문’ 문항으로 변경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외래관광객조사

- 2023년 한국여행 중 중국인이 주로 방문한 지역은 ‘서울’(71.3%)이 가장 높고, ‘제주’(19.3%), ‘경기’(15.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서울 방문 비중이 제일 높게 나타나 향후 제주, 수도권 이외의 지방 분산이 주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음.

[표 17] 방한 중국인의 주요 방문 지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1위	2위	3위
2015	서울(76.2)	제주(32.4)	경기(7.4)
2019	서울(74.7)	제주(17.4)	인천(10.4)
2023	서울(71.3)	제주(19.3)	경기(15.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외래관광객조사

- 2023년 방한 중국인의 평균 체재 기간은 8.5일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증가(7.2일 → 8.5일)한 것으로 나타남.

- 체재 기간에 대해 2023년과 2024년 각각 상반기를 분기별로 비교해 보면, 2023년 상반기에는 체재 기간이 10일 내외였으나 2024년 상반기에는 6일대로 감소함.
- 이는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이 본격 재개된 2023년 1분기에 친구/친지 방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과 일정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8] 방한 중국인의 체재 기간 (단위: 일)

구분	2015	2019	2023
체재 기간	6.4	7.2	8.5

구분	2023년 1분기(A)	2024년 1분기(B)	2023년 2분기(A)	2024년 2분기(B)
체재 기간	13.7	6.5	9.7	6.8
GAP(B-A)	-7.2		-2.9	

주: 61일 이상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외래관광객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각년도), 외래관광객조사 잠정치 보고서

- 2023년 방한 중국인의 1인 평균 지출 경비는 US\$1,949.6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대비 1인 평균 지출 경비가 증가(US\$1,654.4 → US\$1,949.6)함.
- 2023년 방한 중국인 개별여행객의 1인 지출 경비는 평균 US\$2,366.1, 단체여행 형태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의 1인 지출 경비는 평균 US\$1,534.3임.

[표 19] 방한 중국인의 총 지출 경비(2019, 2023년) (단위: US\$)

구분	1인 지출	개별여행객	단체여행객
2019	1,654.4	-	-
2023	1,949.6	2,366.1	1,534.3

주: 1. 국제교통비, 최대금액 제외

2. 기존 1인 평균 지출 경비 산출 시 개별여행객 US\$10,000 초과, 단체 및 에어텔 여행객 US\$11,000 초과는 결측하여 산출하였으나, 2023년부터 전체 사례수를 기준으로 상위 1%, 하위 1%를 가장 가까운 값으로 대체함. 상위 1%에서 지출 경비가 극단치를 보이기 때문에 결과의 안정성을 위해 1%의 기준을 설정함.

3. 2020년 조사부터 지출 경비에 국제교통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2019년 1인 평균 지출 경비는 2023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외래관광객조사

- 2023년 방한 중국인의 주요 쇼핑 품목은 ‘향수, 화장품’(77.2%), ‘의류’(42.5%), ‘식료품’(41.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19년 대비 ‘향수, 화장품’(86.5% → 77.2%), ‘식료품’(49.7% → 41.8%)의 쇼핑 비율은 하락함.
- 주요 쇼핑 장소의 경우 ‘시내 면세점’(46.6%)이 가장 높고, ‘백화점’(34.7%), ‘대형 쇼핑몰’(2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과 비교하면 ‘시내 면세점’(54.9% → 46.6%)은 감소한 반면, ‘백화점’(18.0% → 34.7%), ‘대형 쇼핑몰’(10.6% → 27.6%) 등은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표 20] 방한 중국인의 주요 쇼핑 품목 및 장소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쇼핑 품목			쇼핑 장소		
	향수, 화장품	의류	식료품	시내 면세점	백화점	대형 쇼핑몰
2015	85.4	39.0	35.1	72.7	20.1	-
2019	86.5	42.9	49.7	54.9	18.0	10.6
2023	77.2	42.5	41.8	46.6	34.7	27.6

주: 1. 주요 쇼핑 장소는 2018년부터 문항 일부 수정(‘대형 쇼핑몰’ 보기항목 추가).
 2. 주요 쇼핑 장소는 2018년부터 보기항목이 크게 변경되어 과거 결과와의 비교가 불가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외래관광객조사

■ 방한여행 이후

- 2023년 중국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97.2%로, ‘대체로 만족’이 43.4%, ‘매우 만족’이 53.8%로, 방한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2019년 대비 증가(93.2% → 97.2%)함.
- 인프라별 만족도의 경우 ‘치안’(97.2%), ‘출입국 절차’(94.4%) 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언어소통’(78.2%)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길찾기’(81.7%)에 관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1] 중국인의 한국여행 전반적/인프라별 만족도

(단위: %)

구분	전반적 만족도	인프라별 만족도			
		치안	출입국 절차	언어소통	길찾기
2015	94.1	97.7	93.0	74.5	-
2019	93.2	97.0	94.5	68.7	80.4
2023	97.2	97.2	94.4	78.2	81.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외래관광객조사

주: '길찾기' 항목은 2018년 조사부터 추가한 항목임.

- 2023년 방한 중국인의 향후 3년 내 관광 목적 재방문 의향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가 33.4%, '매우 그렇다'가 61.3%로 94.7%가 재방문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9년 대비 재방문 의향은 큰 폭으로 증가(83.2% → 94.7%)함.
- 관광지로서 한국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은 '대체로 그렇다'가 34.4%, '매우 그렇다'가 60.3%로, 94.7%가 타인 추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타인 추천 의향 역시 재방문 의향과 마찬가지로 2019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84.5% → 94.7%).

[표 22] 방한 중국인의 향후 3년 내 재방문 의향 및 타인 추천 의향(TOP2)

(단위: %)

구분	향후 3년 내 재방문 의향	타인 추천 의향
2015	85.2	91.5
2019	83.2	84.5
2023	94.7	94.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외래관광객조사

4.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 중국인 방한시장은 우리나라 최대 인바운드 시장

- 우리나라는 2000년 중국 전 지역에서 자국민의 방한관광이 허용되었으며, 2000년대 중국인 방한시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2007년에 처음으로 방한 중국인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09년 기준 방한 중국인 수는 전년 대비 14.9% 증가한 약 134만 명임.
- 2013년 이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중요한 국가로 부상함.
 - 2013년에 방한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 점유율이 35.5%에 달하며 우리나라 최대 방문국으로 올라섰으며, 2016년에는 방한 중국인 수가 약 807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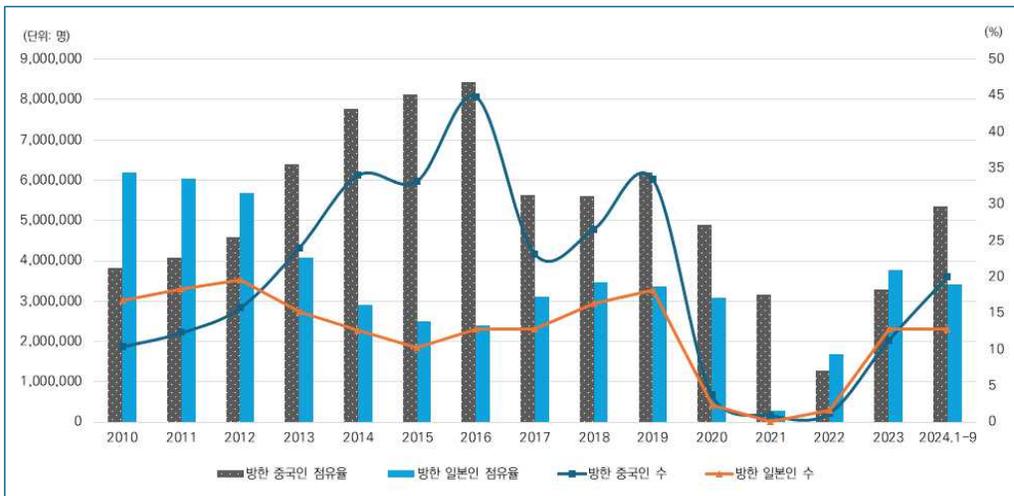
■ 2010년대 중국인 방한시장은 빠른 성장세

- 2003년 SARS, 2015년 MERS, 2017년 사드배치 갈등 등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으나 2010년대 중국인 방한시장은 빠르게 성장해 옴.
 - 특히 여러 위기 중에서 사드배치에 따른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인 한국 단체여행이 크게 감소함.
- 2010년에는 방한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 점유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었으며, 2014~2016년 동안 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점유율은 더욱 높아져 40%대를 유지함.
 - 2017년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방한 중국인 수가 약 41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8.3% 감소하였으나, 2018년 이후 개별여행객의 증가에 힘입어 방한 중국인 수가 2019년에는 600만 명대에 재진입함.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인 방한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으나 2024년부터 빠른 회복세

- 코로나19 팬데믹 타격에 따른 국제관광 교류의 전면 중단으로 2020년부터 중국인 방한시장은 큰 충격을 받으며 급격하게 위축됨.
 - 중국은 2021년에 미국에 이어 제2의 방한시장으로 그리고 2022년에는 미국, 일본에 이어 제3의 방한시장으로까지 밀려났다가 2023년에 다시 제2의 시장으로 올라섬.
- 중국인 방한시장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전면 폐기와 해외 단체여행 허용국 명단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면서 2023년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2024년에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1~9월 기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아직 다다르지 못함. 4)
 - 2023년 회복률(2019년 동기대비): 33.5%, 2024년 1~9월 기준 회복률(2019년 동기대비): 81.2%

[그림 4] 방한 중국인 성장 추이(2010~2024년 9월)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입국관광통계 토대로 저자 작성.

■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중국인 방한여행의 행태적 특성

-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중국인 방한여행의 행태적 특성들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즉, 팬데믹 전후 모두 20~30대 젊은 여성층이 핵심

4) 한편 2024년 9월에 약 146만 명의 외국인이 방한하여 월별 회복률이 2019년 동기대비 100.3%를 기록,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방한시장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월을 초과함.

세분시장이며, 한국여행 관련 주요 정보원으로 인터넷 사이트/앱과 친지, 친구, 동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또한 개별여행과 서울 중심의 한국 방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쇼핑과 식도락 관광이 방한 중국인의 주요 참여 활동임. 그리고 한국여행의 인프라로서 언어 불편과 길찾기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식도락 관광 등 테마관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점, 개별여행의 뚜렷한 증가세, 방한 중국인의 1인 평균 지출 경비 증가, 나홀로 여행자들의 증가세 등은 주요 변화라고 할 수 있음.

2) 주요 시사점

■ 중국인 방한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략적 정책과제 필요

- 중국인 방한시장의 전면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인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후로 살펴본 중국인 방한여행의 행태적 특성 또는 변화에 기반하여 주요 시사점으로서 전략적 정책과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 핵심 세분시장의 재방문 유도과 신규 세분시장의 확대 필요

-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중국인 방한시장의 핵심 세분시장은 20~30대 여성층이었으며 재방문 시장을 견인하는 특징을 보임.
- 코로나19 이후에도 중국인 20~30대 여성층이 주력 세분시장으로 이들의 재방문을 적극 유도하여 중국인의 방한수요를 조기에 회복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20~30대 여성층의 방한 수요/니즈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홍보하고 실제 방한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타깃시장으로서 20~30대 여성층의 핵심 세분시장 외에 신규 세분시장의 발굴 및 유치 전략이 요구됨. 특히 신규 타깃시장으로서 고령층과 Z세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양국의 청소년 관광교류를 늘려나가 중국시장의 외연적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조아라·최경은 2022).

- 중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22년 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30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중국 고령자의 관광 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8년에 중국 고령층의 관광시장 규모는 1조 2,52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으며 중국 고령층이 선호하는 관광 유형은 의료관광, 농촌관광, 홍색관광 등임(이소양 2023).
- 중국 Z세대의 경우 차세대 소비시장의 주역으로서 인터넷 및 모바일에 친숙하며 해외여행 시 다양하고 유니크하며 의미 있는 여행을 경험하고 싶어함(조아라·최경은 2022).

■ 고부가가치 전략을 통한 질적인 성장 도모 필요

- 앞으로의 정책지원은 중국시장의 양적인 증가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향한 중국인 수의 증가보다는 방안 중국인 유치를 통한 관광수입의 증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방안 중국인 유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결국 우리나라 안에서 고용이나 부가가치가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데에 있기 때문임(김형중 2024).
- 이에 중국의 변화된 관광트렌드에 대응하여 고부가가치적 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1인당 소비지출이 높은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한관광 고부가가치 전략이 필요함.
 - 일례로 케이콘텐츠가 방안 외래객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김형중 2023), 방안 중국인 유치에 케이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쇼핑뿐만 아니라 미식, 문화, 힐링 등 다양한 관광경험을 제공하도록 함.

■ 지방 방문 확산 및 만족도 제고 필요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방안 중국인은 특히 서울 방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방안 중국인의 지방 방문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 방문의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는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중국인 방한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조아라·최경은 2022).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중국인 숙박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확대하여 방문 소비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지역활력을 제고하도록 함.
- 강지수·최경은(2022)은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있어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지방의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발굴은 방한 중국인의 장기 체류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조아라·최경은 2022).

■ 중국인 개별여행객을 위한 디지털 대응 강화 필요

- 중국인의 방한여행은 개별여행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보원으로는 인터넷 사이트/앱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중국인 개별여행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디지털 개별여행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크게 온라인 개별여행상품 공급망 확충과 온라인 홍보마케팅 강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
- 테마별·지역별로 다양한 개별여행상품을 개발 및 공급하고 온라인 유통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코로나19 이후 거시환경 변화로서 디지털 전환이 전면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다각도로 강화해 나가도록 함(조아라·최경은 2022).

■ 지역의 전반적인 수용태세 개선 필요

- 방한 중국인의 지방 방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반적인 수용태세 개선이 필요함. 방한여행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언어소통’과 ‘길찾기’에서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특히 개별여행객의 지역 방문에 있어 언어 불편 해소와 이동 편의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함.

- 방한 중국인의 지역 방문 시 안내정보, 음식점 메뉴 등의 언어 불편 문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며, 또한 중국인 개별여행객의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관광지 이동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의 온라인 예약 및 결제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조아라·최경은 2022).

■ 정부차원의 긴밀한 정책적 조율 강화 필요

- 중국인 방한여행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조율도 더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에는 많은 정부 부처의 이질적인 업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 이에 중국인들이 방한여행 시 불편을 느끼거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지금보다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정책 조율을 위해 주기적이고 구속력 있는 부처간 협의가 요구됨(김형중 2024).

참고자료

- 강지수·최경은(2022).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현주·권태일(2023). 「방한 중국관광 트렌드 변화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형중(2023). 「관광수지 영향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형중(2024). 「K-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와 정책적 과제」. 월간 나라재정 제92호. 한국재정정보원.
- 김형중·최경은(2023). 「중국인 방한관광 재개의 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외래관광객조사.
- 이소영(2023).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실버산업 현황」. 한중 Zine INChinaBrief. Vol. 422(2023.07.31.). 인천연구원.
- 조아라·최경은(2022). 「한중일 역내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경은(2011). 「중국인 개별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표나리(2023).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전환의 국제정치적 함의」. IFANS FOCUS 2023-09K. 국립외교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각년도). 외래관광객조사 잠정치 보고서.
-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http://datalab.visitkorea.or.kr>)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know.tour.go.kr>)
- 中国国家旅游局(2001~2014). 「中国旅游业统计公报(2000~2013)」.
- 中国文化和旅游部(2020). 「中华人民共和国文化和旅游部2019年文化和旅游发展统计公报」.
- 中国文化和旅游部(2023). 「文化和旅游部办公厅关于恢复旅行社经营中国公民赴有关国家和地区(第三批)出境团队旅游业务的通知」.
- 中国文化和旅游部(2024). 「中华人民共和国文化和旅游部2023年文化和旅游发展统计公报」.
- 대만 교통부 관광서 관광통계 데이터베이스(<http://stat.taiwan.net.tw>)
- 베트남 관광청(<http://vietnamtourism.gov.vn>)
- 싱가포르 통계청(<http://singstat.gov.sg>)
- 일본정부관광국(<http://www.jnto.go.jp>)
- 중국문화여유부(<http://www.mct.gov.cn>)
- 태국 관광청(<http://www.mots.go.th>)
- 필리핀 관광부(<http://tourism.gov.ph>)